

여성문화큰잔치

-일하는 여성-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97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때 : 1984년 12월 22일(토), 23일(일)

곳 : 부산카톨릭센터

주최 : 부산카톨릭센터(462-7870)

후원 : **여성평우회**

5.420911
54여성
4:2

.00003971

축 시

바	리	데	기	노	리
---	---	---	---	---	---

고 정 희

저마다 기다림의 징표로
 14금 한돈짜리 가락지를 손에 끼고
 축축하게 안개 낀 가을날
 한마음된 사람들 일어서 가네
 가슴 설레며 안개비 맞으며
 동서남북으로 막힌 담벼락을 넘어가네
 한기 서린 길 헤쳐가네
 단풍은 붉어, 단풍은 붉어
 아무도 제외됨 오래 두지 않지만
 누대에 그늘진 광막한 땅에
 자유의 씨앗 뿌리기 위해
 동서남북에서 손잡은 사람들,
 가슴에 벅찬 불씨 품은 사람들
 뜨거운 결의를 주고받으며

밤낮 불사하고 걸어가네
 들을 횡단하고 산을 넘어
 상처난 팔다리 서로 부축하면서
 등돌려진 사람들 찾아가네
 판자놀라 달동네와 난지도로 가고있네
 찬바람 거칠게 울어, 거칠게 울어
 나는 너에게서, 너는 나에게서, 아무도
 드넓은 생물이 될 수 없지만
 크고 환한 사람세상 기다리는 사람들
 가슴에 팔게 타는 불꽃 품은 사람들
 밤하늘 울렁이게 노래 부르며
 외딴 마을로 마을로 가고 있네
 별을 보면 별과 함께 노래하고
 소쩍새를 만나면 소쩍새와 노래하면서
 추수 끝난 말고랑에 떨어진
 우리들 파오를 징검징검 밟으며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리운 땅으로 땅으로 가고 있네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며

여 성 평 우 회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여성평우회에서는 '여성문화큰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여성평우회의 첫번째 문화행사인 이번 잔치가 흥겹고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으나 창립된지 한 돌이 막 지난 유아기인 만큼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성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릇 문화란 국가, 민족, 성별에 따라 차등없이 각기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존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하다 하여 그보다 열등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를 짓밟고 억압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존여비의 사상이 팽배한 사회일지라도 여성문화는 충분히 그 존립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문화를 남녀 성별로 나눈다는 것은 특히 분단된 국가의 통일이 당면 과제인 우리에게는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 역시 총체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한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사회의 전 구성원의 욕구와 갈망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숨기고,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위적 문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 작업을 해야 만 합니다.

오늘의 이 잔치마당은 이러한 것들을 선명하게 깨닫는 장인 동시에 그 해결과 구원의 계기를 마련하여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자 했습니다만 어리고 미숙한 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성원은 새롭게 펼쳐나갈 전전한 여성문화의 큰 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여성문화큰잔치'를 축하합니다

이 호 재

"일하는 여성"은 여성의 참모습이다. 아니, 인간으로서 참모습이어야 한다. 가족과 생활 공동체의 삶을 위해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산과 소비를 위해 남성들과 함께 노동에 참여하며, 주인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가족을 안정시키며, 공동체의 연대성을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일은 공동체를 위한 공적역할에서 소외되었다. 한 가족의 소비와, 가부장이나 남편을 위한 사생활의 서비스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서 여성의 생산적 노동은 가난한 여성들이 질 수 밖에 없는 질곡이 되어 왔다. 이로써 일하는 여성이 천시되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모습은 일그러진 인간의 가련한 모습으로 되어 버렸다.

인간을 가난과 착취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현대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결과는 오히려 여성들을 소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한편 「직장의 가정부」로 연장시켰다.

그 위에 우리 사회에서는 딸들은 「출가 외인」으로 부모들에게 섭섭하고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 왔다. 시집가기까지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미혼자」의 낙인이 찍혀 설 자리가 없다. 이들은 혼인하기까지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난한 부모 형제를 돕기 위해, 혼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등등 「미혼자」로서의 열등감과 수치를 견디며 직장생활을 한다. 현대적 건물과 산업사회의 조직을 갖춘 은행과 회사 등은 이러한 미혼여성들을 「여행원」, 「여사무원」으로 차별하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한다. 여자를 출가외인으로 차별한 가부장제 전통은 현대적 직장에서도 미혼여성 노동력으로 의 차별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여성들이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자기 삶의 주인노릇을 못하며 우리가 속한 국가 공동체의 주권자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효부열녀만을 이상적 여성상으로 강조해 온 양반사회의 전통에서 인간적 여성상이 부각될 수 없었으며, 삼종지도의 윤리로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킨 가부장적 권력이 여성의 인간다움을 억압시켜 왔다. 오랫동안 시집살이에서 받은 학대와, 돈과 권력에 짓밟힌 가난한 여성들의 한이 집합적으로 쌓이고 쌓여 왔다. 이 한은 이제 우리 여성들의 심층심리에 깊숙히 억눌려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인간적 주체성을 찾아 민주사회의 진정한 주인노릇을 할 수 있기까지는, 여성들의 집합적인 한(恨)은 가정에 있어서나, 직장에 있어서 인간적인 참모습을 발휘할 수 없게 한다. 소외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상품화되고 농락당하는 모습으로, 짓밟히고 종살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우회의 "여성문화큰잔치"는 「일하는 여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비인간적 삶에 대한 항거이며 고발인 줄 안다. 여성의 일그러진 모습을 폭로하며 거부하는 한편, 인간적 참모습을 찾기 위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화잔치는 할머니와 어머니세대로부터 물려 받은 한국여성의 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젊은 여성들의 몸부림인 줄로 안다. 그리고 가난과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권리가 짓밟히는 모든 한국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과 희망을 보여주는 큰 잔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여성해방의 시각을 집합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의미에서 여성해방운동은 문화운동의 성격을 그 어떤 운동보다도 강하게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그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 뿌리박은 의식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가치, 규범, 질서인 것입니다. 이때 문화의 창조자, 문화의 향유자는 지배집단입니다. 설사 지배를 받고 있는 민중(또는 대중)이 문화를 향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향유가 아니며, 자기의 삶과는 배치되는 지배문화의 추종일 뿐이며, 어릿광대의 서글픈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민중문화는 민중이 자기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쓰여지면서 자기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중문화운동에서의 주장은,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정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는 집단이 문화의 창조자이며 향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억압과 지배를 깨뜨리기 위한 실천, 즉 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여성문화는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천적 움직임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중문화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민중운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지속되어 왔고 여성도 민중의 일원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중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수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소수일 뿐 아니라 민중운동의 목표속에

‘이중억압에 대한 이중투쟁’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억압과 지배를 깨뜨리기 위한 실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된이유는 “일”에서 여성을 배제시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일을 안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다’, ‘여성은 남자의 부양을 받는 존재다’라는 여성상을 규범적으로 제시해 놓고서 여성의 ‘노동’을 예외적인 것으로서, 남성노동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여성노동을 착취해 온 것이 지배문화의 교활한 수법인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여성문화큰잔치”의 목적도 지금까지의 문화가 왜곡시켰던 성적 대상물이나 수동적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불식하고, 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강한 여성상을 부각시키며, 나아가 억압과 지배에 도전하는 실천을 통해서 여성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서 뿌리내리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2. 여성의 현실과 문화

그러면 기존의 지배문화가 제시하는 여성상은 무엇인가? 또 그것은 여성생활, 여성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살펴봅시다.

* 여성인력개발의 의도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여성노동력이 대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래와는 달리 ‘일하는 여성’, ‘활동적인 여성’ 등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공로자로서 표창을 받은 농촌여성들도 부각되어졌으며, ‘수출의 날’, ‘근로자의 날’이 되면 예외없이 근로여성들의 노고가 치하되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사용되었

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들이 산업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동원되었을 망정, 이들을 동원한 정책입안자나 기업가들이 '여성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까지 돌아가야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성취업자가 전체취업자의 39.1%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이 38.9%, 생산운수직이 21.1%, 판매직이 16.5%, 서비스직 12.0%, 이밖에 사무직이 7.9%, 전문기술직이 3.2%, 행정관리직이 0.2%로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농민의 아내와 그들의 딸들로서 산업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을 졸업한 여성에게는 겨우 서비스직, 사무직 등이 제공될 뿐, 전문기술직에 알맞는 일자리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특징은 연소, 미혼, 저학력,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4세층이 45.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18-19세 20.8%, 25-29세 11.8%, 18세 미만이 5.9%등으로 29세 이하의 연령계층이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미혼근로자들이 되는데 결혼상태별 구성을 보면 미혼이 84.1%, 기혼이 15.9%가 됩니다.

여성근로자의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중졸이 69.2%로 가장 많고, 고졸이 27.0%, 대졸 이상은 2.4% (초대전문대 1.4%)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의 정도에 따

른 여성근로자 분포를 보면 12만원 - 18만원이 28.5%로 가장 많고, 10 - 12만원이 23.0%이며, 9 - 10만원 미만 12.0%, 8 - 9만원 미만 11.5%, 7 - 8만원 미만 8.7%로서 42.2%가 10만원 미만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액수도 세계 최장의 장시간 연장근로의 덕분인 만큼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고달픔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여성근로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차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44.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몹시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참고 : 일본 53.3%, 프랑스 87.7%, 서독 72.5%, 영국 69.5% 등)

-여성근로자는 회사의 내규에 의해서 결혼과 더불어 퇴직을 강요받는다는지, 임신을 하면 퇴직해야 한다는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교환원의 43세 조기정년제와 같이 고용상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의 고통보다도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격적, 성적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주공단내에 있는 한주전자회사에서 발생한 영아유기사건에 대한 회사측의 처리방법은 여성근로자를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의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즉 회사측은 용의자를 찾는다면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의사를 동원하여 50여명의 여성근로자의 옷을 벗기고 하복부를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어린여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적이며 수치스런 처사에 대해 같은 여성으로서 무한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주나 정책입안자가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권익을

돌보지 않는 가장 두드러진 예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자기 노동력의 정당한 댓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하고, 훈련하며, 사용자와 협상하고, 대결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여성능력의 개발이며, 여성이 건강한 자아상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여성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일의 가치와 일에 대한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그러면 왜 기업주나 정책담당자들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끈질기게 투쟁해 나가는 데 스스로의 한계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합정을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현모양처는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의 최고인생관과 가치론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 현명한 아버지”가 나쁜 것이 아니듯 “좋은 아내, 현명한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모양처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여성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그말의 이면에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녀역할분업의 관념하에서는, 여성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며, 결혼 직전까지 편리하게 부리다가 강제로 퇴직시켜도 사회적으로는 물론 당사자로부터도 큰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여자의 일차적인 자리는 가정이며, 가장 바람직한 여성상은 현모양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누구보다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기술훈련이나 노동조합의 교육은 기피

하고 억압하면서도, 미혼 여성근로자들을 위하여 “사랑받는 아내교실”이라는 교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친절을 보입니다. 노동부가 주최하는 노동문화제에서는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들이 잠을 줄여가며 만들었음직한 “자수”, “뜨개” 같은 소위 ‘여성다운’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우리는 비록 지금 고달프게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조만간 사랑스런 아내가 될 거예요”라고 속삭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는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긍지라든가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건강한 여성의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권을 생존권으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권에 대한 빈약한 의식은 사용자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것이겠지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현모양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에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은 무한한 희생과 봉사와 순종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어머니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감사와 그리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식과 가족들에게 쏟는 그 희생의 순수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모양처로서의 미덕은 가정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요구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도 똑같은 강도로 요구되어지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희생과 봉사만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을 때, 사회관계에서 여성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종속적인 인간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가 전근대적인 가족주의 노사관계라고 하겠읍니다. 가족주의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는 부모가 되고 여성근로자는 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딸은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가족에게 강조되는 현모양처상이 회생과 봉사라고 한다면, 중산층 가족에게 강조되는 현대의 현모양처상은 그 기준조차 모호해져서 아무렇게나 시류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대 중산층의 현모양처상은 주로 여성잡지들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너무나 다양한 역할을 여성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여성들을 정신 분열증으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비결

-아들 낳는 비결

-부동산,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투자는 이렇게

-남편의 건강체크

-침실의 연출법

-엄마, 이것은 꼭 아셔야 해요.....

등등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자녀와 남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현대주부의 역할로서 제시됩니다. 가정관리속에 플러스 알파로서 “멋”까지 연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일등주부”가 됩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이 정도되면, ‘주부’라는 직책은 상당히 전문적이며, 정신적, 육체적 중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중산층 주부들이 스트레스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결코 ‘호강에 겨운’ 병이 아니라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 나오는 어떤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즉 현대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심는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힘-때문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상 : 성의 상품화

선전이나 광고물을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신문 등에 실린 광고를 보고 있으면 물건

을 팔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성을 팔려고 내놓은 듯한 착각이 들게 됩니다. 광고의 모델로 등장하는 모델은 젊은 미모의 여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일을 한다거나,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등등 살아 있는 건강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는 거리가 먼, 섹스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퇴폐적이고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불건전한 여성상은 남성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여자란 살 수 있는 상품같은 존재로 은연중에 의식하게 만들며, 여성들에게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젊은 여성들이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의 주체자같은 것에는 흥미도 없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남자에게 선택되어져서 남자에게 기생하여 사는 여성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여성의 아름다움보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대중의 성향은 급기야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유니버스선발대회 등 극히 비정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여왕’으로 숭배하는 우스운 광경을 연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상품시장으로서의 여성

모화장품회사 사장의 말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적응한다고 합니다.

“얼굴만이 여자의 전부인가, 바스트!”

“남자는 청결한 여자를 좋아한다. ××배 타던”

“가지세요 입술, ××립스틱”

“이브는 또 다시 유혹받는다!”

등 온갖 선전문구와 화려한 화면들이 여성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연구했으나 그 질문에 대답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는 말은, 결국 여성들이 일관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없이 주위에서 요구하는대로, 각종 선전광고가 조장하는 유행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여성의 유행심리는 랑콤, 코티, 드봉 등 화장품을 위시해서 온갖 종류의 다국적 기업을 서슴없이 끌어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종합혼수상이 등장하고, 혼수산업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여성이 상품시장으로서 공략되고, 강제동원되어 가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하는 여성상’을 왜곡시키고 현모양처, 성적 대상물로서의 여성상을 부각시키고 있는 지배문화의 숨겨진 의도가 되겠지요.

*수동적 여성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에게 강조된 미덕은 순종과 인고였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인고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여성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은 제시되지도 않았거니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세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등으로 여자의 수동성을 미덕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여성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인생의 최고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렇게도 중요한 결혼상대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대중가요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랑은 수동적일 뿐입니다. 어떤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어요. 나머지도 나의 것은 아니죠……”

3.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조

이상에서 우리는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문화의 가장 나약한 희생자와 추종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적 지배를 극복하고 여성 스스로가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합시다.

건강한 여성문화의 창조는 무엇보다도 “일”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이 일을 안해온 것은 아닙니다. 무보수의 가사노동에서 시작해서, 저임금의 노동자로서, 농가주부이면서 농업종사자인 여성농민으로서 여성들의 노동이 없이는 우리사회는 하루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여성의 일이 올바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사회적 관계속에서 굳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성문화는 일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일의 과정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성근로자들이 쓴 수기나 시의 발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건한 여성문화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적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집단적 표현의 형태로까지 발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일하고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여성들이 개별적, 분산적인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문화의 창조는 바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여성의 개별, 분산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가장 용이한 집단은 여성근로자와 여성농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속에서 발견되는 “두레패” 연회가 오늘날 전전한 민중문화 창조의 전형

이 될 수 있듯이 여성근로자나 여성농민은 “일”의 공동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이익집단운동, 즉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통해서 건 강한 집단적 의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계층의 여성이든 중산층 여성이든, 여성 대다수는 무임의 가사노동자로서 사회와 고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과 고립되어 있는 대다수 가정주부들의 고립, 분산성을 깨뜨리고, 이들을 새로운 문화창조의 주체자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일”로 부터 뿌리뽑힌 여성들—가정주부, 실직여성, 학생—은 바로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그 원인을 고발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여성문화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은 공동의 일을 하거나 계

층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에서 소외되는 여성으로서의 공통적 고통을 토대로 해서 결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여성운동을 위한 소그룹이나 여성운동단체의 필요성과 의의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성평우회가 여성문화큰잔치를 마련한 것도 바로 여성일반의 고통을 고발하고, 분산된 여성의 문화창조적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저희들의 잔치마당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새로운 ‘여성문화운동’의 창조를 위해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여성평우회 문화팀의 공동토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이가 시원치 않느냐? 내가 퇴직수당 300% 받아줄테니 그만둬라. 후배를 위해서도 일 자리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퇴직을 종용하였다. 본인이 이 사실을 노조에 알려왔다. 노조는 즉각 이것은 회사의 정책으로 나온 것이니 회사에게 따져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사부장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일편단심 오로지 일만 해온 근로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장정도로 승진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정당한 출산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능력여부를 비꼬면서 모욕하는 것은 한마디로 회사가 인륜을 무시한 처사다. 당신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돈과 명예가 있는 당신들의 자리를 후배양성을 위해 빨리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더우기 가장 비인간적인 언사로 여성근로자를 모독한 것은 노조로서는 절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니 회사가 즉각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말문이 막힌 인사부장은 절대로 회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이튿날 언니는 회사의 사과를 받고 회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산전산후 60일의 휴가를 받게 되었다.

회사와 노조의 임신퇴직제문제에 얽힌 대립과 투쟁에서 노조가 승리하자 계속 다니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 결혼과 임신후의 직장생활을 반대하던 조합원들도 너도나도 출산휴가를 얻어 아이를 낳았다. 노조는 이스라엘 및 선진국의 예를 들어, 바람직한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합원들은 조금씩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직장생활을 해 나갔다. 또 기혼자들은 미혼일 때보다 더 일에 애착을 갖고 권리획득에 적극 앞장을 섰으며 노동조합의 귀중함도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았다.

'82년 3월 노조의 핵심간부 6명이 해고되었을 때에도 기혼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노를 느껴 8박9일의 부당해고철회 농성에 임신을 하고도 적극 참여했으며, 아이가 있는 엄마도 간간이 집에 다녀오면서 투쟁대열에 앞장섰다. 그 소란속에 임신 9개월, 5개월의 임산부가 통증과 하혈로 병원에 실려갔고 7월 16일 회사는 공장을 철수하면서 남성폭력배들을 시켜 임신한 기혼여성을 집중구타하였다. 즉, 노조의 결속력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때 5개월의 임산부가 사산을 하였다. 그녀도 노조투쟁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던 핵심조합원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은 결혼후에도 변함없이 직장을 가져야만 노동현장의 악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여성들의 훌륭한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

지금 노동현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직업병, 인권유린 등이 난무하며, 미혼여성들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주는 미혼여성들이 떠난 자리를 기혼여성들로 메꾸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혼여성근로자들은 대부분 미혼일 때 노조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족의 생계를 거의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업조건 변화에 별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작업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형편이다. 고용주는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데 기혼여성들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현장의 작업조건이 열악하다. 해서 결혼등으로 도피해서는 안된다. 결혼후의 지속적인 취업보장, 거기에 따르는 출산휴가와 수유시간의 확보, 탁아시설의 확충은 근로여성의 노동운동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버스안내양의 자살

- 승객에 불친절 이유 사표낸 뒤 물탱크에 투신
- 동료안내양들 퇴직금 덜 주려 내쫓았다 흥분

이것은 지난 8월 21일자 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다. 55번 창진운수 안내양 장길복 양은 승객에게 불친절했다는 시민의 항의 전화를 받은 회사측의 사표 압력을 받고 그 부당함에 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에 “바른말 잘하고 항상 명랑하고 활발했던” 장양의 죽음은 동료 안내원에게 큰 충격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안내양의 할복자살, 약물자살 이후에도 안내양의 인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55번 안내양들은 22일 새벽, 1) 장길복양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2) 시민신고로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인격적 대우를 하라 4) 규정된 근무일수를 지키라. 5) 암행감사를 하지 말 것. 6) 격무를 덜어줄 것 등 8개 요구조항을 내걸고 승차거부와 농성에 들어갔다.

사건이 확대되자, 회사측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발뺌을 하였으나 안내양들은 “그럴 리가 없다. 평소에도 사표를 노태부르는 듯 한다” 라고 하면서 “회사측이 장양을 해고한 것은 승객의 항의 전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퇴직금은 적게 주기 위해 1년이상 장기 근무자를 미리 내쫓아 버리려는 통상적인 버스회사의 변칙 경영 방법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안내양은 “장양의 죽음은 안내양 전체의 죽음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죽었어야 할 것이며, 그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라며 울먹었다.

그러면 장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내양이 처한 전반적인 근로실태를 알아보자, 이들의 노동조건은 근로여성노동의 일반적인 특징인 저임금, 최장시간 근무, 높은 노동강도 이외에 불결한 기숙사등 복지시설 미비, 회사측의 몸수색, 암행 등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과 사회적 냉대로 인한 정서적 굴욕감 등이 있으며 또한 악성 무좀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도 16~18시간, 주 80~96시간으로 일일 8시간, 주 48시간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대부분 4~5일 연속 근무에 하루를 쉬는 실정으로 격일제 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나 복일제 근무(2일 근무 1일 휴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야간노동 연속노동이라는 가장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임금실태를 보면 한달 23일~25일 근무시 18~2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식대(한끼 500원) 30,000원, 재형저축, 의료보험, 갑근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4~15만원에 불과하다. 이 임금을 1일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기본급은 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아적 저임금이 장시간 근무를 강제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또한 연차, 월차수당은 전혀 없고 생리수당이 월 4천원 지급되며, 상여금은 구정, 추석 2회 8만원씩 지급된다.

교문리 본사의 기숙사와 봉천동 숙박소의 시설 역시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 방에 15~20인이 함께 생활하며, 교문리의 지하수는 식수로써는 불가능하고 세탁역시 녹물이 들 지경이어서 근처 세탁소에 돈을

주고 하는 실정이다. 휴게시설, 난방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사문제로 중노동에 필요한 열량이나 영양등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저급한 식사와 더불어 식사시간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빵으로 때우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한 배차시간 관계로 화장실에 겨우 다녀온뒤 부랴부랴 차에 올라타야 한다.

이들은 또한 악성무좀, 위장병, 생리불순, 냉증, 관절염, 신경통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측은 기숙사를 통하여 안내양에 대한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압행, 몸수색 뿐 아니라 안내양중에 회사측과 내통하는 자를 통해서 감시하는 등 안내양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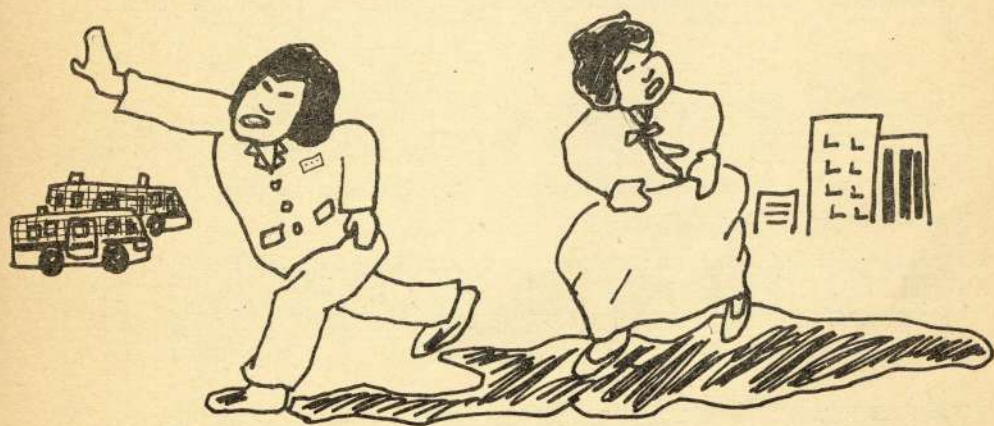
그러면 노동조합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조합이 유명부실했거나 어용노조이

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안내양들은 모두 노동조합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안내양 출신의 부녀부장(노동조합의 조합장은 기사출신 이들은 모두 회사측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에 대해 자기들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다. 이것은 노조에 상근하고 있는 부녀부장이 안내양들의 무지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안내양들에게 인식만 좋게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도 114번 보성운수 안내양68명 전원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승차거부 및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장길복양의 죽음의 헛되지 않도록 안내양 자신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존을 위한 임금인상, 1일 2교대제 기숙사 등 복지시설 확충, 압행, 몸수색중지 등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익 산지 방 민 요 굿거리 장 단

후 창

아 아 아 아 아 - 아

헤 헤 헤 헤이 헤이 헤 얼씨구나 비가온 다

어디를 갔다 - 이제 오나 옥중춘향이 임만난 듯 -

칠년 대 한에 단비로 - 세 벼잎이 훨훨 영화되 니

어 찌 아 - 니 반길소 나 비 를 맞아도 나는 좋 고

밥 아 니 먹어도 배가 불러 김제 만경 너른 - 들 - 판에

광 아 리 삼 으 로 하여주소 거드렁거리고 놀아보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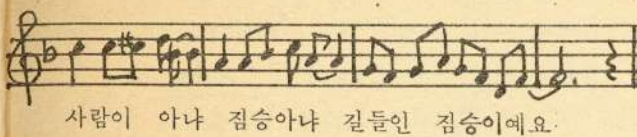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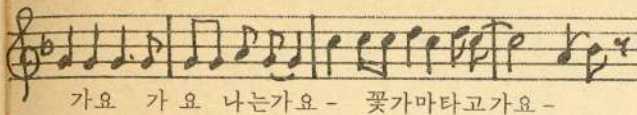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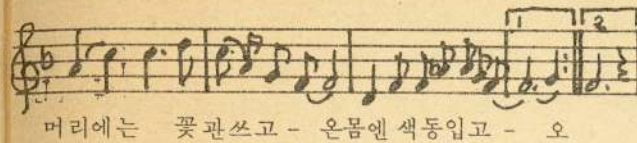
여기서부터는 선후창 같이

얼씨구 절씨구 지 - 화자 아 좋네 얼 씨 - 구나 절 씨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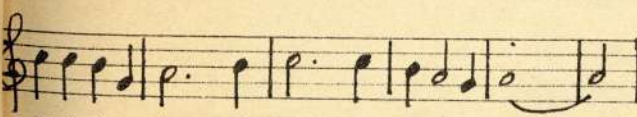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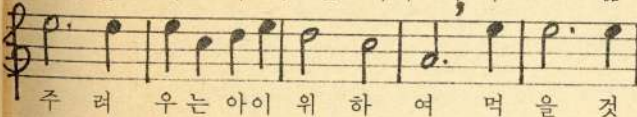
* 소리지르고 난 뒤 농악(삼채장단)

※ 노래부르기 ※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이 세계 절반은 나



2. 가요가요 나는가요 꽃상여 타고가요
눈-에는 꿀바르고 입에는 대추물고 - 오
가요가요 나는가요 꽃상여 타고가요
잘못하나 어디보자 눈총 - 잔뜩받 - 고
가요가요 나는가요 꽃상여 타고가요 - 오
사람이아나생명이아나길 - 들인 짐승이예요

3. 가요가요 나는가요 훨훨 - 벗고가요
싱그러운 몸냄새로 싱그런 목소리로 - 오
가요가요 나는가요 훨훨 - 벗고가요
나-대로 살 - 려다. 바람 - 잔뜩안 - 고
가요가요 나는가요 훨훨 - 벗고가요 - 오
목석이아나짐승이아나하늘같은사람이예요

2. 밤새워 함께 고통했지만 내
사랑떠나갔네 - 아침의 밝고
찬란한햇살 아무런 소용없네 - 너
무도 쓰린아픔 인하여 내눈엔
눈물마저 말랐네 그 누가 나의
아픔알리요 이세계 절반은 나 -

3. 하많은사람 오고가지만 그
대로 지나치네 - 더많은재물
모으는 일이 저들의 관심일뿐 - 당
신을 원망하진않아요 그러나
외면하진말아요 나 여기당신
곁에 있어요 이세계 절반은 나 -

☞ 동당에 타령은 p 29 에 있음.

전통민요와 여성

이 동 연

I. 전통민요에서 여성들의 노래(婦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요(男性謠)나 동요(童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사민요가 여성들의 길쌈노래에는 수다히 존재하고 있기에 민요 전반의 장르 확산에 크게 공헌해 주고 있기도 하다. 여성과 노래의 이 밀착된 관계를 단순히 여성들의 유난한 노래 선호기질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오히려 노래 이외의 다른 문화양식을 허용받지 못했던 전통여성사회의 폐쇄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무속제의를 바탕으로 생성·발전한 농악굿놀이·가면극 등을 비롯 일상적 예술행위로서의 두레패 농악에 이르기까지, 부락 단위로 연회되는 보다 개방적인 문화양식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소외되기 마련이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가면극의 경우 여성들은 공식적인 관람조차 허용받지 못해 술심부름차 뒤에서 어정거리다 어깨너머로 잠시 잠시 구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며, 논농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두레패 농악에서도 여성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리를 메기거나 풍장을 울리기에는 사회적 관습의 제약이 컸던 듯하다. 여성사회의 폐쇄성은 노래의 가창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민요의 세 가창방식, 즉 독창·교환창(두 팀이 교대로 불러가는)·선후창(선창자 1인이 소리를 메기고 나머지는 받는) 중 여성생활요의 대부분은 독창 또는 이에서 발전한 제창식으로 되어 있다. 집단성·개방성이 강한 교환창과 선후창에 비하면 독(제)창은 보다 자족적·은폐적인 가창방식이라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위압당한 여성사회의 폐쇄성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특정한 연행공간도 또 더불어 받아줄 소리꾼조차도 딱히 필요하지는 않은, 지극히 생활과 긴밀하되 사회적으로는 비공식적일 수 밖에 없던 <노래>라는 예술 양식은, 비공식적이기에 오히려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실을 보다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게 하는 데 공헌한 듯하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라는 동일한 사회규범아래 나온 것이면서도, 조선조 양반계층 여성들의 문학인 내방가사에는 민요의 그것과 같은 발랄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의 남존여비사상을 보완해 주는 「내훈(內訓)」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껏 교육받은 유교 윤리에 스스로 결박당하고 있던 양반계층 여성들의 의식수준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민요와 달리 기록되어 돌려지기도 했기에 사회의 공식적인 이목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했던 배경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구전(口傳)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민중계층 여성들의 노래는 훨씬 자유롭게 그 생활의 낱낱한 모습을 반영시키고 있다.

II. 일반적으로 민요를 분류할 때 기능상으로는 크게 노동요·유희요·의식요로 나누는데,

마을굿(지신밟기)이나 장례에 따르는 의식요는 거의 여성과는 무관하므로, 여성노래의 경우는 크게 노동요와 유희요 두 가름으로만 보아도 좋을 것이다. 노래의 대부분은 노동요이다.

성님성님 사촌성님	고초 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 어렵디까	시집보다 더매우라

이 보편적이고 짧은 노랫말에 응축되어 있듯 여성노래의 대부분은 ‘시집살이’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노래들은 주로 어디에서 불려졌을 것인가?

잠아잠아 오지 마라	오는잠을 어쩔라고
시어머니 눈에 난다	늘애기메 잠잔다고
시어머니 눈에 나면	시어머니 송사가네
임의눈에 절로난다	웬수같은 이내잠아
잠아잠아 오지 마라	너때문에 나죽겠다
잠을자다 혼란본다	제발비니 오지마라
혼란이사 보지 마는	멀리멀리 가려무나

‘잠노래’의 하나이다. 오는 잠을 억지로 쫓기 위해 노래까지 지어 부를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이니, 한가로이 노래부를 틈이 따로 있었을 법하지 않다. 노래는 대부분 설 틈없이 분주한 일상의 노동-취사, 밭매기, 바느질, 방아찝기, 아기보기, 질쌘 등-과 더불어 불려졌을 것이다.

시집가서 사흘만에	요전네야 요전네야
불같이도 더운날에	그절사 일이라고
사래길고 장찬밭에	점심참 되어오나
지질이도 지슨밭에	마당저래 들어서니
질것이도 굳은밭을	큰머슴이 내다보고
한골매고 돌아보고	그절사 일이라고
두골매고 돌아봐도	점심참 되어오나
아무네도 아니와서	정지라고 들어가니
삼세골을 매다보니	애수(여우) 같은 시누이가
점심참이 늦어가서	이성님아 저성님아
집이라고 찾아가니	그절사 일이라고
대문곁에 놓던개가	점심참 되어오나

한 집안의 며느리가 배 풀고 일을 하면서도 개나 머슴에게 까지 멸시를 당해야 하는데, 그

기막힌 속사정을 하소연 할 대가 없으니 시맥식구 안보는 바깥에서 발매기, 나물뜯기 ... 를 하며 탄식하듯 노래라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팔자 사나와 과부된 이들은 ‘청상(靑孀)’의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고, 벗기 힘든 ‘가난’을 한탄하기도 한다.

‘첩노래’는 남성들에게 허용된 축첩제도에 의해 피해받던 여성들의 입장을 반증해 주는 자료이기도 한데, 첩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 흥미롭다. 속 끊이며 첩네 집에 당도해 보니 화좌도 고운 첩이 “형님” 하며 달려나와 극진히 대접하는고로 오히려 그 고운 태에 반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며 눈물짓고 돌아서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첩 죽었다는 소식에 “에라 고년 잘 죽었다” 하며 끝까지 전투의지를 잃지 않는 내용도 있다. 눈물짓고 돌아서는 체념형 사설(가사)이 비장성을 주조(主調)로 공감확보에 성공하고 있다면, 의지형의 사설을 적대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적극적 의지표명이 주는 통쾌함에 그 맛이 있다.

이 두 유형, 즉 내용이 체념적인가 의지적인가 하는 구분이 여성노래 전체를 통해서도 각 작품별로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부분이 위 두 유형을 한데 섞어 노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 고달픈 시집살이인지라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장함이 압도적이나, 그 표현의 골계성은 비극적인 현실속에서도, 노래부르는 이들이 객관적 비판의 눈을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한다.

잡은뽕을 다뜯어서	시아주범 잡수시고
숯불피워 구워다가	다리다리 버티는다리
논아주며 하는말이	신랑님이 잡수시고
날개날개 덩던날개	가슴가슴 썩이던가슴
시아버님 잡수시고	이내내가 먹었구나
입술입술 놀리든입술	못할네라 못할네라
시아머님 잡수시고	시집살이 못할네라
요늬구녕 저늬구녕	열세무명 열폭치마
휘두르던 눈구녕은	눈물받기 다씩었네
시할머니 잡수시고	못살네가 못살네라
호물호물 옥문통은	시집살이 못살네라
시하래비 잡수시고	해주자지 반자지로
좌우불은 간덩이는	지여입은 저고리도
시누님이 잡수시고	눈물받기 다쳐졌네
배알배알 품배알은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시집살이를 탄식하는 내용이나 뽕의 각 부위를 나누어 주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시집식구 개개인을 희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형편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골계적 표현이라는 형식적 기교로 내용의 비장함을 차단시킴으로써 비장함에

침몰 당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고, 객관적 비판과 현실극복에의 의지를 은연중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자 즉 시집식구 개개인의 성격을 꼬집어 내어 회화시키는 것은 노래 부르는 이들에게도 썩 통쾌했던 듯, 이런 류의 표현이 따로 독립되어 ‘방귀타령’ 같은 노래를 성립시키기도 한다.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방구	머슴	방구는 마당방구
시어머니	방구는 요망방구	남편의	방구는 풍월방구
시누씨	방구는 고자질방구	요내	방구는 도적질방구

현실적으로는 방귀조차 도둑질하듯 소리없이 뺏어야 했던 머느리들이 노래속에서나마 분풀이를 했던 것이라.

Ⅲ. 동네부인들 여럿이 한데 모여 길쌈을 하는 두레길쌈은, 개인적인 한풀이 삼아 비교적 짧게 부르곤 하던 여인네들의 평소 노래실력을 집대성시켜 새로운 노래장르를 성립시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사회적으로 동일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 부르는 것이기에 그 주제에 있어서는 별차가 없으나, 개인창으로는 불가능한 문학적 성과가 집단창에 의해 달성된다.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동조와 찬탄에 힘 입어 특히 창작력과 기억력이 뛰어난 이들의 능력이 한층 개발되고 발전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길쌈이라는 노동의 형태는 모심기나 논매기처럼 일정한 박자 맞추기를 요하지는 않기에 후렴이 따로 삽입되지는 않았고, 독창형태가 길어지는 식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단지 길이가 연장된 것만은 아니다. 향유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인물>을 설정하여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끔 내용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앞서의 개인창 노래들이 서정 (또는 서정적) 장르에 속한다면, 이 노래들은 서사 (또는 서사적) 장르로 분류된다. 그 유명한 ‘진주낭군’도 서사민요의 하나이며 ‘쌍금쌍금 쌍가락지’, ‘이선달네 만팔애기’ 등 경북지역에서 수집된 노래만도 십 수 편이 있다.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이들 서사민요는 대체로 비극적이어서 ‘비극적 서사민요’라 칭하기도 하는데, 전체 노래들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뽑아 추상화 시킨 몇 개의 단락소에 의해 분석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사민요의 줄거리는 <고난>으로 시작되며 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해결의 시도>가 뒤따르나, <정상적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노래들이 대개 <좌절>로 끝나버리고 만다. <좌절>로 끝나는 노래들의 대부분은 그러나 그에 머물지 않고 <역설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보통이다. ‘진주낭군’의 경우, 결국 여주인공이 목을 매어 죽는 <좌절>에 이르나 그 죽음이 오히려 남편으로 하여금 버선발로 뛰어 나오며 조강지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고난을 죽음 등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식이 바로 <역설적 해결>의 방식이다.

그러나 드물긴 해도 다음과 같이 끝내 현실적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결말지워지는 작품도 있다. 사건은 역시 시집간 지 얼마 안돼 그릇을 깨뜨려 버린 며느리의 <고난>으로 부터 시작된다.

깨였구나 깨였구나	서른세폭 첼도치고
시아버님 하는말씀	동네어른 잔치하고
며늘아기 들어봐라	밤중밤중 야밤중에
임네친정 내려가서	차들같은 이내몸을
세간전답 다팔아서	짚동같이 헐었으니
은전놋전 물어온나	이내몸값 천량이네
시아버님 들어보소	이내몸값 물어주면
천금같은 자기자식	세간전답 다팔아서
구름같은 갓을쓰고	은전놋전 물어줍세
하늘같은 말을 타고	아가아가 며늘아가
소녀집에 장가올때	이후로는 좋게살자
소도잡고 닭도잡고	

며느리의 재치있고 당찬 말대꾸가 시아버지로 하여금 애써 화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위 작품과 같이 현실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 또는 역설적 해결로 끝나버리는 많은 서사민요들은, 대신 골계적 문체나 회극적 묘사를 삽입하여 내용의 비장함을 차단시키는데, 그 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강원도 조리장사' 같은 노래는 이야기 전체가 우습게 전개되는 회극적 서사민요이다. 효성 지극한 아들내외의 봉양에도 불구하고 노상 춤다고 성화가 대단하던 홀어머니가 지나가던 조리장사를 자기 방에 묵게 한 뒤엔 춤다 소리가 없어졌다는 해학적 이야기인데, 웃음 뒤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향유집단의 발랄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회극적 서사민요는 수집된 편수가 최소화다.

IV. 남성 중심의 노동요는 노동이 집단적이었기 때문인지 모심기노래·논매기노래 등 특정 노동형태에 따르는 노래 분류가 용이하다. 반면 여성들은 잡다한 노동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므로 길쌈노래를 제외하곤 특정한 노동형태에 따르는 분류가 곤란하다. 그러나 유희요의 경우는 다르다. 농악대 풍물을 잡을 수 있던 남성들은 노래 이외의 또 다른 놀이거리를 마련하고 즐겼기에 특정한 노래를 남겨놓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놀이에 부수되거나 흥을 돋구는 장단·음률 또한 노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강강수월래” “월워리청청” “피리따기”와 같은 대표적 유희요들을 남겨놓고 있다. ‘강강수월래’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월워리청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려졌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모두 모여 놀

수 있도록 허용된 몇 안되는 명절 한때를 계기로 전승된 유희요들이다. 놀이에 대한 권유 등이 따로 사설화되어 있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불려지던 노래의 사설을 그대로 묘사설화하고 절마다 후렴을 붙이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화전놀이, 널뛰기, 윷놀이 등에 따르던 노래들이 남아 있다.

V. 노동요든 유희요든 여성들의 노래는 특히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소재나 시어(詩語)도 생활 주변에서 늘상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바늘노래’ ‘치장노래’ ‘나물노래’ 등 세부적인 일상사까지가 다 노래화 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중에서도 으뜸은 ‘시집살이’이다. ‘시집살이’는 전통사회 여성들이 도달한 최고의 사회인식이기도 하다. 삼종지법(三從之法),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의 삼엄한 계율아래 기구한 일생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이기에 시집살이 이상의 사회적 가치에는 눈돌릴 겨를조차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토록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만큼의 발랄하고 생생한 노래들을 지어 불렀으니 참으로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 타는 속사정의 어려움이 짐작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유일한 여론통로는 민요를 지어 부르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공식적이고 은폐된 형태로 불리워진 민요가 당시 여성들의 애환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엄격한 가부장제적 유교윤리는 양반계층 부녀자들은 물론 서민층에 까지도 순종과 인내를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여성문제는 그 시대는 물론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쟁취한 남성에 대한 피수탈자로서의 여성의 입장은 가부장제 사회가 유지되는 한 그 이중적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여성들의 발언이 차츰 공개적으로 발전되어지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 * 민요부르기 * —

- 동 당 에 타 령 -

(뒷소리) 동당덩 동당덩 덩기 동당에 동당덩
동당에 지야 동당에 지야
덩기 동당에 동당덩

(선소리) 1. 솜버신솜버신 옥양목에솜버신
시엄씨출라고 해다가왔더니
어느나 년이 다 둘러갔네
덩기 동당에 동당덩
2. 솜버신솜버신 옥양목에솜버신
신을줄모르면 남이나 주지
신었다벗었다 부싯집 만든다
덩기 동당에 동당덩

(삼채)

3. 날씨가좋아서 빨래를갔더니만
모진놈만나서 돌베개 베었네
덩기 동당에 동당덩

4. 시다야시다야 사랑스런시다야
박을줄모르면 박지나 말지
박았다뜯었다 나오시 만든다
덩기 동당에 동당덩

소슬곳 - 내림곳의 사회적 의의

황 루 시

먼저 커다란 드럼통을 세운다. 그리고 쌀가마를 엮는다. 그 위에 자그만 밥상을 몇개고 올린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놓고 그 위에 작두를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작두는 지붕높이만큼 높이 올려져서 쳐다보기만 해도 눈앞이 아찔하다.

붉은 형짚이 살며시 걸터지면 파르스름하게 빛을 내는 작두날이 나타난다. 가슴이 뻐근하게 죄어오면서 무척내고 간절한 마음이 된다. '제발 아무 탈없이 오르게 하소서.' 아직 땅위에서는 맨발의 무녀가 신을 받기위해 격렬히 도무하고 있다. 차마 안타깝게 쳐다보는데 문득 신이 내린 무녀는 한달음에 경충뛰어 작두위로 오른다. 그리고는 파아란 칼날위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땅 아래 머리를 조아린 우리를 굽어본다.

그녀는 지금 인간이며 또한 신이다. 잠시나마 신이 그녀의 몸을 빌어 우리 인간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무수히 절하면서 감히 우러러보는 사람들, 가없는 아녀자들이다. 할머니, 아주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웃 아낙, 삶의 질곡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여인들, 신은 그들에게 약속을 내린다. 걱정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의 정성이 가뭇하니 예쁘게 보고 곱게 보아 도와주겠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아넘기고 한 가족이 화목하게 살거라. 기쁘고 반가우시다.

신의 약속은 그대로 그들의 종교가 되어 삶을 구속한다. 사는 것은 곧 고통이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야 말로 바로 삶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온 것은 학식이 많거나 자기 수련을 쌓은 유식자층의 사고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실천해온 것은 열두살에 시집가서 열들의 아이를 낳으며 평생 고생길에 매여 있던 수많은 여인네들이었다. 그네들의 끝없는 희생과 사랑이 설사 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이었다해도 종래는 이 민족을 끌어온 저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에 목숨을 걸고 신의 뜻을 전함으로서 바로 그 여인들의 의지가 되어주었던 무녀는 그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온 계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신이 들리면 무당이 된다. 양반집 규수중에서도 무당은 나올 수 있고 철없이 뛰어놀던 예닐곱 계집아이가 갑자기 천연스레 돌아앉아 점을 칠 수도 있으며 동네의 암전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박수무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 문화권에서 신들린 무당은 극도로 가난한 집안의 무식한 아녀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하자 곧 남편에게 버림받고 찢어지는 가난의 어려움에 시집식구와의 불화가 겹쳐 불행하게 살던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의지하던 자식마저 잃는다면 그 여인은 미칠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한 여인은 깊은 마음의 병을 앓게된다. 입맛이 전혀 없어 냉수로 연명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때로는 죽은 자식의 환상을 보고 외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높은 신같이도 느

껴지는 신기한 존재를 목격하여 그 옆에 엎드
리기도 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은밀한 속삭임
에 홀려 밤새도록 산을 헤매기도 한다. 그녀
는 극도로 불행한 현실을 이탈하여 자신을 구
원해줄 어떤 세계를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약국이나 병원을 데려가도 병은 낫
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심해질 따름이다. 도
리어 최후수단으로 점을 치게 되고 그것이 신
병(또는 巫病)이라고 알려지면 그녀는 평생
신을 모시고 사는 기구한 무당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종교사제자는 일상적 삶과 유
리되어 가능한 비세속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교
육받고 살아가게 된다. 독신을 지키는 신부가
그러하고 산속에 묻혀있는 불승들이 그러하며
목사에게는 평생토록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속종교의 사제자인 무당은 사회 밑
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뿌리뽑힌 삶의 절
망이 누구보다도 깊은 사람중에서 나오게 된다.
이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한 현
상으로 그네들은 절망의 극한에서 강신체험을
하고 마침내 신을 맞아들임으로서 고통을 벗
어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는 신들린 여인
이 오랜 병고끝에 무당이 되는 것을 하고 새
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병은
씻은 듯이 낫는다는 사실로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을 받는다는 것, 무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당은 과연 이 사회에서 어
떤 존재일까. 무속은 오랜 세월 미신으로 여
겨졌고 무당은 천시되었기 때문에 무당의 사
회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무당을 만들기 위한 입무의례
(入巫儀禮)를 통하여 살펴보면 그 본래의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황해도와 경우, 입무의례는 3 단계로 나뉘
어 행해진다. 처음은 「허튼굿」이라 하여 잡
신을 물리는 굿을 한다. 흰콩과 좁쌀로 만든
허튼밥을 바구니에 담아 입무자가 머리에 이고
한동안 춤추다가 등뒤로 던지는데 바구니가 발
딱 일어나 앉을 때까지 계속한다. 바구니가 옆
어지면 잡귀들이 아직 덜 받아먹은 것으로 생
각한다. 「허튼굿」은 입무자의 정신상태가 정
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땅에 떨어진 허튼밥을 받아먹는 잡귀들은 지
금까지 가엸은 입무자를 지배하던 인생관이자
세계관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무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잡귀가 지배하는 세계로부
터 벗어나야만 한다. 허튼밥을 담은 바구니가
발딱 일어날 때까지 등뒤로 던지는 「허튼굿」
은 바로 입무자가 든신을 벗겨내고 올바른 신
을 모시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즉 지금까지의
입무자가 잡혀있던 헛된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이다.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입무
자는 올바른 신을 맞아들이는 「내림굿」을 하
게 된다. 「내림굿」은 먼저 자신에게 든 신
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무엇때문에 신을 모시
게 되었는지 이유를 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일
월성신, 단군할아버지, 산신, 칠성 제석, 사해
용왕등 무속이 신봉하는 무수한 신이 그녀에
게로 찾아온다. “단군할아버지의 명을 받고
산신님의 명을 받아 자손없는 자에게는 대를
이어주고 빈곤한 자에게는 부귀영화를 붙여주
고 아픈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고자” 그녀는
여러 신들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과
연 이러한 무당의 소임을 할 수 있는가 능력
을 테스트해 보는 의례들이 이어진다. 무당에
게 가장 중요한 무구(巫具)인 부채와 방울

을 숨겨놓고 신의 힘을 빌어 입무자로 하여금 찾게하는 의례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앞날의 길흉을 점치게 함으로서 예언능력을 살려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에 합격을 하면 입무자의 머리를 풀어 다시 올려준다.

우리나라의 성년식에는 관례와 제례가 있다. 관례를 통해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제례로서 땅았던 머리를 올려 쪽을 찌었는데 이는 곧 혼인할 자격을 갖춘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의식이었다. 「내림굿」에서 머리풀고 다시 올려 비녀를 꽂는 것은 바로 이 제례와 같은 의례로서 당당한 무당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입무자는 가장 중요한 무구(巫具)인 부채와 방울을 받게 된다. 방울과 부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무당으로서의 자격획득을 말하는 것으로 굿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내림굿」을 하기 전 한낱 정신질환자에 불과했던 입무자는 숨겨진 무구를 찾고 신에게서 부여받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무당의 징표인 방울과 부채를 받게 된 것이다.

입무의례의 마지막은 작두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는 「소슬굿」이다. 「소슬굿」은 완벽한 경지의 신들림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날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의 현존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의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슬굿」을 하면 최고의 기능을 보유한 무당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무의례는 바로 어떻게 현실의 생활에서 절망에 갇혔던 한 인간이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극복하고 사

회적으로 공적인 책임을 지는 무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치 장님 아버지와 가난속에서 시달리던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고 온갖 영화를 누리는 왕후로 재탄생하는 옛날이야기와도 같이 병든 여인은 「허튼굿」을 하면서 죽어버리고 「내림굿」과 「소슬굿」을 통해 남을 위해 신의 말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짧은 명을 이어주는 건강하고 능력있는 무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오늘 벌어지는 「소슬제」는 바로 이와같은 재탄생의 의미가 담겨진 통과의례적 축제라고 생각한다. 신이 내리면 무당이 솟는다 하여 「소슬굿」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때 신의 의미를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풀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소명의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이 해야만 할 일, 모두에게서 소외되고 더욱 심한 불행을 겪게 된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의미와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지 못한 채 혼미한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지배를 받아온 헛된 상병들을 마치 잡귀를 몰아내듯 떨쳐버리는 일이다.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하여 마치 숨겨진 부채와 방울을 탐색하여 찾아내는 무당처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땅아내린 머리를 틀어올리고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있는 존재로서 다시 솟아나는 일이다.

연희마당

첫째마당 : 딸놀이마당

휘몰아치다 댕어주고 댕어지는 듯 다시 이어지는 농악대 잡색놀이의 흥겨움에 강강수월래·뚫다리밟기 등 여성용 민속연희와 노래들이 삽입되어 짜여진 마당이다. 이 마당은 지신밟기 때의 농악대 굿패가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집안 구석구석마다에서 축화기복(逐禍祈福)의 떠들썩한 의식을 거행하듯, 여성문제 전반에서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하나씩 잡색놀음으로 펼쳐나간다. 뒤이어질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본격 판별임을 예비하는 앞놀이격의 마당이 기도 하다. 여성문제만을 국한된 소재로 삼아 놀이화한 것이기에 따로 「딸놀이」라 명명하였다. 놀이의 순차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여성들의 쉴 틈 없이 바쁜 생활과 시어머니의 '비나리'에서 보듯 여전히 완고한 남아선호사상에 희생되는 여성들의 고단한 팔자가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전개되고 농악의 〈태극진·방울진〉 동선들은 운명인 양 어지럽다. 〈강강수월래〉 놀이의 일부인 〈문지기틀·하고나서 풍물에 구음(口音)으로 엮어 부르는 사설 "갓 마흔에 아들낳아 판·검사로 만들어서 농부신세 면해보세"는 '아들'에게 집약된 농민들의 희망을 지적하는 동시에, 달갑지 않게 태어난 딸들의 슬픈 운명을 환기시킨다.

(2) "가요가요 나는가요 공장엘 가요"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 교육도·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벌이차 대처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 〈강강수월래〉에 뒤따르던 놀이 〈청어 엮자〉의 꼬여드는 모양은 흡사 방적공장을 연상시키고 "공공 공장가자 야근특근 작업하러"로 바뀌 불러 여성근로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나아가 남성인 중간관리자와의 갈등 또한 노골화된다.

(3) "가요가요 나는가요 몸팔러가요" 또 다른 딸들은 창녀가 되었다. 포주의 포악한 착취와 '관광역군'이라는 미명하에 가리워진 관광기생의 처참한 현실이 묘사된다.

(4) 길쌈과 연관되는 여성 전용의 놀이 〈뚫다리밟기〉를 응용, 딸들의 회생으로 아들들이 차지한 고시패스의 영광을 상징하듯 딸들이 만든 뚫다리를 아들들이 밟고 지나간다. 성공한 아들에게 '마담뚜'가 제시하는 슈퍼프리미엄을 지참한 후보자명단이 결혼세태를 풍자한다.

(5) 이혼문제, 가족법개정문제 가장 일반적인 남성희포인 '외도'와 '폭력'을 들어 여성측이 이혼을 소청하나 사내의 오입쫄은 당연시 여기는 사회풍토에 의해 거부되고, 〈취잡기 놀이〉식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폭력의 난무는 여성의 비극을 부른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해보려는 가족법 개정안은 유립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모든 문제를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여성적 자질 개발로 해결해야된다는 일부 여성인사의 왜곡된 처방도 곁들여진다.

(6) 결혼·출산과 취업문제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능력을 경쟁해보려는 여성들의 정당한 의지를 용납치않는 현 사회현실을 급속한 템포의 대사연결로 보여준다.

(7) 에어로빅 댄스판 이 판이 신나는 춤판으로만 일관될 수 없는 이유는 에어로빅, 기타가 여성의 상품화·비인간화 등 상업주의에 부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고가 계속 마이크로 울려 퍼진다.

(8) 끝마무리는 이시미의 등장으로 전개된다. 〈꼭두각시 놀음〉에 나오는 흉악한 짐승인 ‘이시미’는 모든 여성운동에 반기를 드는 남성중심의 보수적 사고방식과 사회관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미를 술래삼아 〈꼬리따기 놀이〉 식으로 잡힐 듯 말 듯 긴박하게 돌다가 드디어 이시미에게 먹혀버리고 만다. 여성문제의 복잡함 및 그 해결의 날이 아직은 요원함을 고하는 것이라.

둘째마당 : 한국영화의 현황

영화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자리잡고 있다. 한국 영화는 의미심장하게도 개항기 열강의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입되었고(모 연초회사의 담배값을 몇 갑 가지고 오면 활동사진을 보여준다는 식의 방법), 그 이후 본격적인 일본의 식민정책이 전개되면서 정책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후 많은 외화가 수입되었고 60년대·70년대초까지도 영화는 현상 유지의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70년대 고도성장 정책 이후 80년대 각종 레저산업과 스포츠가 활기를 띠에 따라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는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엄청난 제작비가 들고 엄격한 유통 과정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은 한국의 경우, 대중들에게 눈요기감의 단순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에 대표적인 기능으로 이동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의 중요성 여부는 한국 영화사에서 일제시대를 살펴보면 쉽게 드러난다. 즉 민족 영화의 선구자라 불리우는 나운규(羅雲圭)의 경우 초기에 그가 보여주었던 민족적 경향은 일제가 구축한 영화 산업 구조속에서 제작·유통되면서 결국 그 구조 속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한국 영화 침체의 원인을 물량의 부족으로 돌린대거나 감독·스텝·배우의 자질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80년대 민중문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영화 운동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영화 운동은 민중의 삶을 영화 속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표현해내고 그러한 내용을 다양한 형식의 실험을 통해 형상화하고, 자생적인 구조(제작과 유통)를 구축할 때 현실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영화는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여성 문제의 면에서 살펴본다면 한 예로 70년대에 양산된 호스텔스물 영화의 경우 그들의 삶을 정직하게 표현해내고 그러한 삶의 고통과 분노,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의 묘사를 제대로 보여줬다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표현하여 오히려 왜곡시켰다고 하겠다. 영화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수동적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형의 여성(역사물의 경우), 무분별한 성의 유희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즐기는 여성(대개 중년 부인과 여대생) 등이 그 주종을 이룬다. 영화는 다른 어느 매체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성을 상품화시키며 여성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번 영화 작업은 근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주로 수기와 근로 여성과의 대화를 통한 자료에 의존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영화에서는 근로 여성, 농촌 여성, 유태여성 등등 모든 계층의 여성의 삶이 왜곡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작업은 지금

까지의 영화에서 왜곡된 여성의 삶을 지양하여 구체적이고도 진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이겨보려고 서울로 상경한 소녀의 체험이 영화의 뼈대를 이루는데 이 소녀의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신의 부당한 생활에 대한 사회적 깨달음의 과정들을 지식인적 도식 속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여전히 과제로 남는 문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앞으로의 영화 운동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임무이고 이 과제는 구체적인 영화 작업의 경험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마당 : 사 례 극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와 반봉건적인 남녀차별적 관습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여성의 억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째마당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이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장의 사례를 몇개 선정하여 극으로 꾸며보고자 하였다. 사회구조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구조내에 편입된 여성근로자의 무지나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가부장제의 무지한 윤리가 전 여성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현상인 것이다.

사례극의 첫번째는 현재 여성직업으로는 비교적 조건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는 교사직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일반 사무직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여교사에게도 강요되고 있는 가부장제적 윤리를 개사곡으로 엮은 노래춘극으로 꾸몄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공공연히 강요되고 있는 임신 퇴직제와 기부금 문제, 또한 교사로서의 자세 강요 등의 문제에 쏠점을 맞추었다.

우리사회의 어느 계층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남성사회의 횡포는 직업의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인간생활의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임신과 출산이 '일의 능률'이라는 명목아래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직장에서 여성의 능력에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되면 퇴직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족적 분위기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여자다운 여자'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극에서는 몇 해 전 광주 7여고에서 있었던 임신여교사와 동료 여교사들이 대동단결하여 10개월 동안 모두 한복을 입고 출근을 해, 임신 여부를 숨겼던 사건을 바탕으로, 무시되고 있는 교편에 대한 것들을 노래를 빌어 회화화시키고 있다.

두번째 사례극은 지난 8월 서울츠문수회사의 안내양이었던 장길복(여·23세)양이 승객과의 사소한 마찰로 인해 회사측으로부터 사표를 강요받고 자살한 사건을 소재로 했다. 항간에 서는 단순한 사표강요에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취한 장양의 의식에 문제가 있고 무슨 젊은 애가 그리 독하냐고 운운하지만 과연 이 자살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심정적인 죽음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는 오로지 극대이윤추구를 위해 근로자의 생존은 어떠한 상관없는 기업의 냉혹한 논리가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한 인간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라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의 희생자가 어린 나이의 여성근로자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남성지배체제가 여성에게 가

하는 억압의 깊이를 더욱 느낄 수가 있다.

이처럼 교사직에서의 임신퇴직 차별문제와 안내양의 자살 등은 곧 사회구조의 모순과 남성지배체제의 혹독한 논리가 여성에게, 그리고 근로자에게 가한 거대한 압박이며 그 책임은 당연히 사회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교사와 안내양이 당하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을 연극으로 꾸며봄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 깊이하여 앞으로의 문제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해가고자 합니다.

네째마당 : 소슬굿마당

이 마지막 마당은 무교(巫敎)적 통과의례의 하나인 '소슬굿' 형식을 빌어, 어둠의 역사로서의 여성사를 함축시키고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결단과 기원을 응축시킨 마당이다. (1) 살풀이 (2) 병신춤 (3) 작두놀이의 세 과정은 그대로 여성사의 과거·현재·미래를 뜻하기도 하고, 주관적·개인적 한풀이가 집단성을 획득했을 때에 발휘하게 되는 객관적 자기인식의 힘과 그 힘을 바탕으로 펼쳐나갈 소망스런 앞날을 예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당의 도입은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

(1) 살 풀 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촛불이 밝혀진다. 어둠 속을 뚫고 솟아오르는 정갈한 빛들은 억울한 한평생을 살아내던 여인들의 애소(哀訴)인 양 차라리 한스럽다. 저 어둠 속에 이 땅의 딸들이 감내해 온 오욕과 수난의 역사가 그 숨결도 고스란히 살아 남아 있기 때문일까. 향을 쫓는다. 여성사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놓았던 수많은 여인네들의 날낯한 숨결이 느껴진다. 그 숨결의 처절한 한숨소리를 받아 안은 듯 무녀(巫女)는 천천히 '살풀이'의 첫 동작을 시작한다. 느린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무녀는 손끝에 둘러진 흰 천자락으로 한많은 여인들의 넋을 질어올린다. 잔잔한 흐느낌과도 같은 춤사위 사이사이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오열의 몸짓이 더할 수 없이 서러움다. 그러던 한 순간, 꿈결같던 춤사위가 문득 그쳐지고 무녀의 시선이 서서히 주위를 돌아본다. 돌아다보며, 나만이 아니라 너도 그녀도 모두 억압 속에서 힘없고 나약한 존재들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객관적 깨달음이 시작된 것이다.

(2) 병 신 춤

일그러진 손, 찌그러진 표정, 절뚝이는 발..., 각양각태의 병신놀음이 신나는 삼채가락으로 펼쳐진다. 나만 병신이더냐 너도 병신으로구나 너만 병신이더냐 내도 병신으로다- 어둠과 슬픔 속에 갇혀 있던 자신을 객관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터져 나오는 신명나는 한 판 춤이다. 안으로만 삭히던 서러움의 상처를 갖가지 병신짓을 통해 바깥으로 표출시켜 놓고 보니, 드디어 애절하던 슬픔의 벽은 무너지고 저기 뒤돌아서 앞이 안보이도록 울고 서있는 내 모습이 비로소 보인다. 내 모습 닮은 너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너 또한 내게 손을 내미니 '우리'는 드디어 거대한 하나가 된다. 작은 불빛이 모여 어둠을 이기듯, 드디어 해야 할 몫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 하나된 우리로서 조심스럽게 첫 땅을 디디리라.

(3) 작 두 놀 이

신오른 무녀는 시퍼런 작두날 위에서 쟁 장단으로 춤을 추며 더욱 더 신율리기에 박차를 가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위를 돌며 춤춘다. ‘살풀이’와 ‘병신춤’이 눈물과 신명을 거치며 겪는 진통을 함축하고 있다면, ‘작두놀이’는 진통을 통해 도달한 집단 정서·객관적 자기인식을 신율리듯 솟구쳐 오르게 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다짐하고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당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군상들은 그 창조의 역사를 끌고 나갈 개개인들로, 이 잔치판에 끼지 못한 다른 처지의 여성들 동료들까지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의 군무는 이미 도달한 인식의 육화(肉化)이며 또 자기구원에 대한 간헐적 의지표명이기도 하다. 신오른 무녀의 휘감기듯 풀어지는 춤사위와 재린 발놀림에도, 그 주위를 도는 군상들의 마구잡이 춤사위 하나하나에도 솟구쳐 올려진 의지와 힘이 만들어갈 내일의 바람직한 여성사가 소망처럼 투영되어 있으니, 우리들 개개인 바로 저 군무 속 춤꾼의 일원이 아니고 무엇이랴.

※ 사진전 ※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으면서

박 정 희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찾아 나선지 일년이 지나간다. 일의 성격과 상황을 찾아야 했고, 인물 설정에도 고심해야 했다.

생산직 여성, 농·어촌여성, 빈민여성, 특수직 여성 등에 관한 자료를 읽은 뒤 분류별로 촬영 스케줄을 잡은 뒤 인물들을 찾아 떠났다. 83년 가을, 전북 이리시 황등면에서 타작하던 아줌마. 타작기 소리로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시커멓게 그을은 얼굴로 씨-익 미소지어 주던 그 모습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지난 겨울, 몹시도 춥던 밤에 인천 만석동 시장 골목에 들어섰다. 이른 새벽 낙지잡이배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스악국」선배언니와 밤을 지낸 후 새벽바람을 맞으며 부둣가로 나갔다. 순이엄마와 순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둘러 노를 젓기 시작했다. 새벽 5시면 물이 벌써 다 빠졌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해상경비원 눈을 피해 어둠을 헤쳐 나갔다. 겨울낙지잡이는 바람과 싸우면서, 동면하는 겨울낙지의 구멍을 찾아야 하는 힘든 일이다. 장화를 준비 못한 나는 맨발로 갯벌에 빠져가며 스냅을 잡았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오후 4시쯤 되니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귀가길을 서둘러야 했다. 순이엄마는 낙지여섯마리 순이할머니는 두마리를 잡았다. “한마리에 800원씩 넘겨주니 오늘 찬거리값뿐이야” 진흙을 털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렸다.

창동 영세의류 하청공장에서 만난 아가씨들, 처음 카메라를 꽤나 의식하던 순박한 처자들이었다. 식사를 같이 하며 시간이 흐르자 협조해 주기 시작했고 웃으며 대화도 할 수 있었다. 두 세평 남짓한 방의 즐비한 기계들에 매달려 있던 그녀들과의 대화는 아팠던 기억을 남겨준다. 그러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일매일의 촬영 귀가길에서 온 몸에 휩싸이는 찬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곳 아가씨들을 만나고나서 부터이리라.

유난히 힘든 가방을 등에 지고 징글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느라 밤늦게 까지 일해야 만 했던 여성배달부, 삭막한 공사장에서 겨우 만난 도배공, 산동네에서 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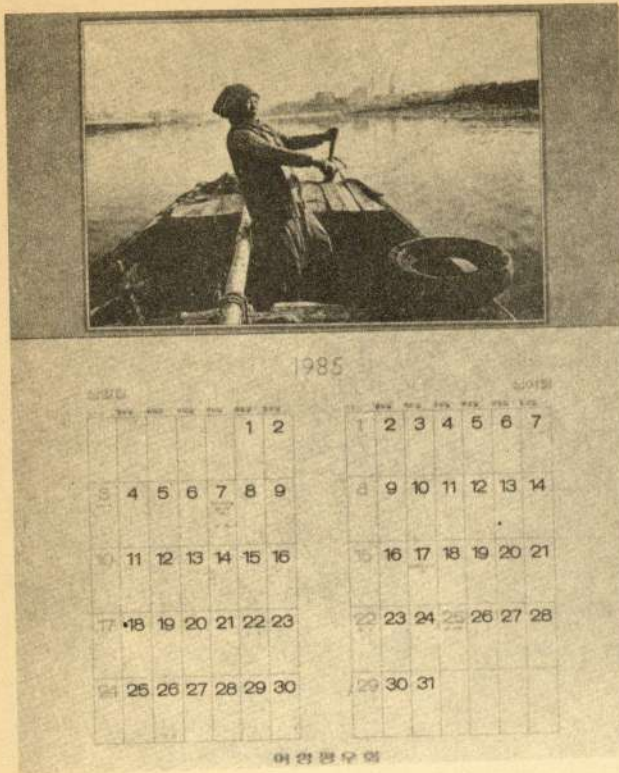


값 벌이 부업을 하고 있는 빈민여성들 참으로 여러 곳에서 많은 얼굴과 다양한 노동의 현장을 접하였다.

그들에게 약간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카메라를 들이댔던 자신, 참으로 죄송하고 전방저 보였다.

그동안 정신없이 뛰어 다녔던 지난 날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인화지에 다시 나타난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서려온다. 일하는 여성의 힘든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노동의 가치들이 여기저기에서 밝혀져야 할텐데 따라서 이 기록들이 단지 기록만을 위한 것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고발성·보도성에 역점을 두려고 노력해 보았으며 무엇보다 역점을 둔 것은 노동의 건강함과 생명감을 형상화하는 데 있었다.

“일하는 여성” 카렌다를 제작하고서



오랫동안 일반인의 의식에 내면화된 수동적 여성상과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한국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노동, 빈민여성과 특수직 여성들의 일하는 모습을 사진달력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여성들을 통해 여성도 이제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며, 노동강도가 센 분야에서도 남성과 나란히 일할 수 있다는 여성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진정한 여성상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시도한 작업인만큼 사진으로서의 예술성과 보도성을 함께 만족시키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노동을 통한 여성들의 건강한 생명력과 만족감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달력에 나온 사진들은 지난 1983년 가을부터 1년여동안 각지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찍은 70여점의 사진 가운데 인쇄매체라는 여러가지 제약속에서 선택된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시도된 여성카렌다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앞으로 내용도 풍부하고 질도 향상된 카렌다가 제작되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 여성관계자료 목록집

1960년 이후 국내에서 간행된 주요여성관계 자료를 주제별로 목록화한 것입니다.

☐ 사진판넬 판매

“일하는 여성”의 생생한 모습을 판넬화 하였습니다. (15,000 원)

☐ 서적 판매

여성문제 탐구에 도움이 될 서적들을 판매합니다.

☐ 민속음식판매

잔치마당이 더욱 풍성해 지도록 우리 고유의 민속음식을 마련합니다. 유자차, 김밥, 빈대떡, 막걸이, 도토리묵 등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당신의 포켓에

문예도

부산시 중구 남포동 4가 5번지
남포동 육교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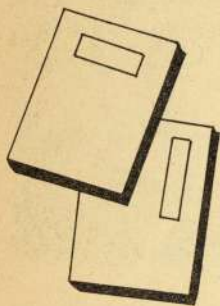
전화문의는 22-2938, 23-18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
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
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하
고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록하
록하고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
을 기록하고 여성이 기록하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여기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 저희들이 이미 펴낸 책

토박이 1

- “지역사회문화운동을 위한” 토박이는 부산 최초의 인문·사회과학 부정기 간행물 (MOOK) 입니다.
- 부산지역문화 및 지역사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 그리고 11월에 펴낸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

김정환 수상집

- 역새풀처럼 튼튼하게 살아오신 우리의 정신적 지주, 문단의 원로이신 김정환 선생님이 떠올려가며 쓰신 최근의 칼럼·수상 모음집.
-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인간답게 산다”는 꿈과 용기를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詩集

박호원 시집

- 도깨비 불을 쫓는 전적인 자기 황홀의 작업에서 벗어나 자기의 리듬이 他人의 리듬이 되고, 동시에 민중의 리듬이 되는 그런 共同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책머리 중에서 -

기획출판부

804-0008

동보서적

서면 동보극장 옆에 있습니다.

802-2557-55777

■ 400만 부산시민의 사랑방, 동보서적에서는 좋은 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Brufen 400mg.



삼일제약주식회사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13

☎ 463-6331~2

生理痛의 原因은

Prostaglandines(PGs)로 밝혀졌습니다.

生理時 자궁내피막의 상피세포에서는
자궁수축물질인 Prostaglandine 이 생산되어
원활한 생리현상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생리통을 나타내는 여성의 經血
중에는 정상적 인 수준보다 PGs의 함량이
현저하게 높아 자궁평활근이 경련을 일으켜
生理痛이 발생합니다.

Brufen은 과도하게 생성되는 P.G의 生合成을
억제하여 생리통을 원인 적으로 제거하므로
치료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이상적인
생리통 치료제입니다.

포라틴® 질액

질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세정
분만·수술후 좌욕, 질내외부 살균소독.

새로운 후지시스템

후지필름을 후지기계의 칼라현상 과정을 거쳐서 후지칼라 인화지위에
아름다운 칼라사진을 만들어 드리는 모든 과정이 후지타입 입니다.



후지필름을 후지칼라 현상소에 맡겨 주시면
사진뒷면의 FUJI COLOR PAPER 마크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촬영한 후지필름을 가까
운 조광후지칼라 특약점에 맡겨주시면 여러
분의 소중한 필름을 현상하여 드립니다.



FUJICOLOR

조광현상소

부산시 동구 범일 2 동 830-72 TEL. 67-6601~3 (영업부) 69-7981~2

